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⑧ 선승의 출가 ④



▶한줄요약
선지식은 둔한 중생에게 거듭 다가가 준다. 중생은 일생에서 세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선승이 만든 선승, 세상이 만든 선승

7. 스님 만드는 스님

월혜와 수월은 선지식의 한 말씀 그 눈빛을 천 둥 번개인 양 간파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도 명백한 것을 놓치곤 한다. 선지식은 둔한 중생에게 거듭 다가가 준다. 중생은 일생에서 세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세 번의 존재전환 기회다. 모두를 향한 법문이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권유의 모양새를 갖춘다.

영호(映湖 1870~1948) 박한영은 자칭 '일장춘몽 도인'을 만났다. 도인은 매우 강력한 언어로 영호에게 자극을 주었다. 도인이 영호의 법기를 알아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호의 발심은 그 전에 이뤄졌다. 17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봉사에 가서 들은 '생사법문'을 전해 듣고 크게 발심한 것이다. 선지식의 법문은 동산(東山, 1890~1965)에게도 결정적 출가 계기가 되었다. 동산은 이른 시기부터 전통 한학을 배웠는데 그 총명함으로 선생과 어른들의 칭송을 받았다.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면서 주시경과 오세창을 알게 되었다. 이분들이 용성(龍城 1864~1940)을 소개해주었다.

"대중이여, 밥 먹고 옷 입고 활동하는 주인공을 아십니까? 이 주인공을 알면 곧 각자(覺者)이니 깨달은 이는 생사에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어 안심입명하는 것입니까?"

용성의 법문을 들은 동산은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출세가 보장됐던 서양의의 길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택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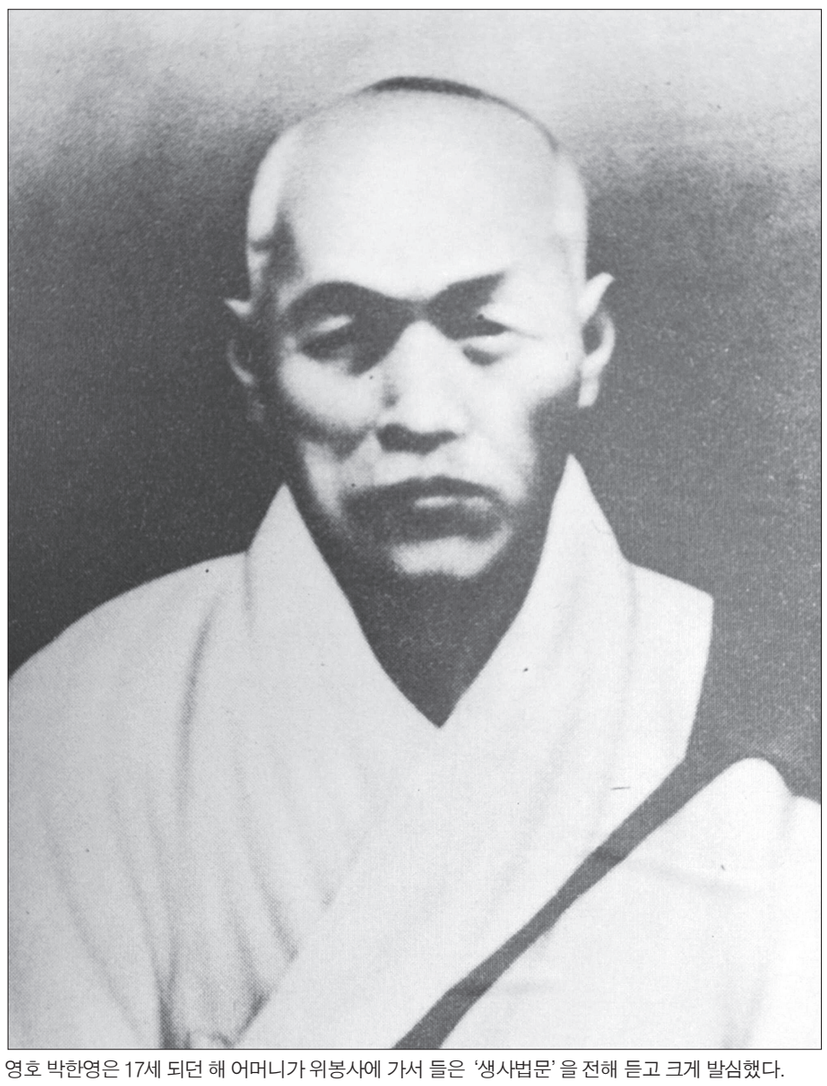
진제(1931~)는 20살 때 해관암에 도인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도인은 석우(石友 1875~1958)였다. 석우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금생에 사바세계에 안 나온 것으로 하고 중놀이를 해보지 않겠는가?"하며 권유했다. "중놀이를 하면 어떠한 장처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니 석우는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라 답했다. 그 말에 강력히 이끌린 진제는 '위대한 부처'가 되자고 출가했다.

인환((印幻, 1931~2018)은 1.4후퇴 때 가족과 이별하고 원산에서 혼자 배를 타고 묵호항으로 와서 부산까지 걸어갔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다. 지옥 같은 피난 생활 중 한 노보살을 만났다. 노보살은 인환에게 밥을 사주고는 "불도를 닦지 않겠느냐?" 물었다. 우물쭈물하는 인환에게 노보살은 10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다시 만난 노보살은 "결심이 됐소?"라고 물었고 인환은 자기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 노보살은 인환을 바로 선암사로 데려갔다. 처음 만난 젊은이에게 출가를 권유한 노보살의 정체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보살들'은 출가 승려들에 대한 지극한 지원으로 한국불교를 지탱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고개를 숙인다. 또 출가자를 인도하여 절살림 부처님 공부가 지속되게 하는 데도 기여해 왔음을 인환의 경우를 통해 알고 놀란다.

혜정(慧淨, 1933~2011)은 고등학교 때 놀러간 봉암사에서 성철을 만나게 됐다. 성철은 인간이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했다. 생사 문제가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급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괴상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님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성철은 혜정의 가족 사항을 묻기도 하며 은근히 출가를 권유했다. 학교를 더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혜정에게 성철은 꼭 다시 오라고 이끌었다. 몇 해 뒤 혜정은 봉암사로 다시 갔다. 뒤쫓아 온 부모는 성철과 청담의 말씀에 설득되었다. 혜정은 청담을 은사로 출가하게 되었다.

만공과 용성도 젊은이를 출가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만공은 9살 벽초(碧初 1899~1986)를 한번 보고는 수덕사로 데려가 출가시켰다. 만공을 따라간 벽초는 금강산 유점사와 오대산, 지리산 등 명산대찰을 찾아 치열하게 정진했으니, 그건 만공이 동자승일 때 스승 경허 선사를 따라다니며 수행한 것과 닮았다.

모친전한 법문듣고 출가 발심
피난지 노보살에 이끌려 출가
독립투사에 사형선고 내린 후
극심한 고통 · 참회하고 출가



영호 박한영은 17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봉사에 가서 들은 '생사법문'을 전해 듣고 크게 발심했다.

도문(1935~)의 아버지는 용성의 유발상좌였다. 용성은 도문의 아버지에게 소생 아들이 12살이 되면 출가시키라고 권했다. 도문은 태어나기도 전에 스님이 될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다. 용성에 의해 출가한 도문은 스승의 유훈을 명심하면서 법륜, 학담 등을 출가시켰다. 동산, 도문, 법륜, 학담 등의 출가가 용성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8. 세상 번뇌와 시대 고민

이찬형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서 조선인 최초의 일제 판사가 되었다. 찬형은 효봉(曉峰 1888~1966)의 출가 전 이름이다. 운동 이후 일제는 독립투사에 대한 재판을 조선인인 찬형에게 맡겼다. 한 독립투사가 국경을 넘어와 주재소를 공격하는 전투를 수행하던 중 체포되어 평양 복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 찬형은 그 독립투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찬형이 판결문을 읽어가자 그는 부릅뜬 눈으로 외쳤다.

"너는 조선인으로 독립운동은 안 하고 제국의 녹을 먹으면서 독립투사를 사형에 처한단 말이냐? 벌레보다 못한 놈아!"

찬형은 온몸을 떨었다. 사흘 밤낮을 굶고 고뇌했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있는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독립투사를. 이 짓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도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 아니다.'

찬형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참회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을 찾아 나섰다. 판사직을 버리고 아내와 세 명의 아들딸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다. 그 길은 출가의 길이었다.

만해(卍海1879~1944)가 출산한 아내의 몸을 풀 미역을 사러 가는 길에 금강산으로 출가한 사연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이한 일로 느껴지는 것은 만해가 이 땅에서 동학과 청일전쟁 등을 겪으면서 가진 고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과 시대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더 근본적인 출가인연이 된 것인데 성암(性庵, 1889~1950)의 경우에서 그 점이 더 뚜렷하다. 성암은 10명의 누나 형님이 어린 나이에 다 죽고 나서 11번째로 태어난다. 어머니는 11번째 아들만은 잃지 않으려고 온갖 공덕과 지성을 다 들였다. 그 덕에 성암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 4,5 세가 되자 새 옷만 입혀주면 헐벗은 아이에게 벗어주고 돌아왔다. 떡이나 별식이 생기면 들고 나가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1살에 사서삼경을 다 통독하고 혼인을 했다. 17살 되던 해 첫아들을 얻어 사랑을 쏟게 되니 가족과 동네 사람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해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저수지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부자를 찾아가 큰돈을 빌려 저수지를 축조했다. 17살 소년에 대한 세인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3년 뒤 쏟아진 폭우에 저수지 둑이 터지니 그 아래 일곱 동네가 다 물에 떠내려갔다. 수해를 변상하느라 고생한 성암도 돈을 빌려준 부자도 거지 신세가 되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화근이 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야반도주를 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가사 장삼을 걸친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 배례하는 광경을 보고는 정신이 맑아졌다. 자기가 불교와 인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장안사로 간 것이 출가수행의 시작이었다.

보문(普門, 1906~1956)은 유년시절 고향 문경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혼인을 하여 아들도 둘 두었다.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민족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항적 학생운동에 가담했고 사회주의 운동과도 연루됐다 한다. 식민정책을 비판했다 하여 일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부산항 항만노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항만 하역장의 반장으로 일하다가 동포의 노임을 착취하는 업자의 행실에 분노하여 단도로 업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았다. 노동자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향했다. 민족이 독립해야만 민중이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강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금강산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유점사와 장안사로 갔다. 마하연에서 발심을 하여 마침내 오대산 상원사로 내려와 한암을 은사로 출가를 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정영(1925~1995)은 남쪽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되면서 남쪽에 혼자 남게 되었다.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상공부 특채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 시절 공무원의 부패상을 보고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며 사표를 냈다. 장관이 나서서 만류했고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고 구슬리면서 정영을 붙들었다. 끝내 정영은 사직을 하고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다. 교사 노릇을 하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목도하고 아파했다. 이렇게 삶을 고뇌하던 중 용성의 뒤를 이어 '깨달음 운동'을 펼치고 있던 소천(韶天 1897~1978) 선사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정했다. 세상에 대한 고뇌는 정영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었던 맞춤복'을 드디어 입게 했다는 점에서 큰 아이러니다.

자살한 원봉(圓峯, 1942~1992)을 위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천은사 49재에 참석하여 애도와 축원을 한 이야기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암세포가 뼛속 곳곳에 깃들어 자신에게나 주위 분들에게나 고통과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발향' 시키지만 '뭇 삶의 질곡과 고통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지혜의 땅' 지리산에 당신의 육신을 뿌린 것이다. 그래서 '허상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편안해지고 싶다는 임종게를 남겼다. 생의 이런 마무리는 그 출가 사연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봉은 출가 전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자 생활을 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의 삶을 추구한 것인데 더 완전한 보살적 삶은 출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가했던 것이다.

원봉의 경우를 통해서 출가는 스스로 죽이는 것으로써 중생을 해방시키는 것인 줄을 짐작하게 된다. 출가는 안과 밖에서 함께 일으킨 혁명이었다. 대사즉생(大死卽生)의 가르침을 주며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다. 효봉의 출가도 뜻밖의 극적 전환이 아니라 자연스런 탈바꿈이며, 임시로 법관이 되었지만 결국 본질로 돌아갔다고 본 견해도 이런 가르침과 이어질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